

'홍진경 붕어빵 딸' 라엘 "엄마 얼굴 독특해서 매력 있어"

등록 2026.05.15 15:14:35



[서울=뉴시스] 홍진경, 라엘. (사진=MBC) 2026.05.15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방송인 홍진경이 딸 라엘과 유쾌한 모녀 케미를 뽐낸다.

17일 오후 9시1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'소라와 진경'에서는 이소라와 홍진경이 파리 현지 에이전시 미팅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.

홍진경은 외출 전 한국에 있는 딸 라엘에게 전화를 걸어 응원을 구한다.

전날 라엘이와 다뤘던 홍진경은 "싸웠는데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"라고 말하고, 라엘은 "엄마니까!"라고 답한다.

훈훈한 분위기도 잠시, 홍진경은 30년 전 활동했던 소속사를 다시 찾아가는 감회를 전하며 "엄마가 가능성 있을 것 같냐"고 묻는다.

라엘은 고민 없이 "없다"고 답해 홍진경을 당황하게 한다. 그러나 곧 "말랐고, 머리 짧고, 얼굴이 독특해서 매력 있다"고 덧붙이며 홍진경을 응원한다.

라엘의 말에 긴장을 풀 홍진경은 이소라와 함께 에이전시로 향한다. 두 사람은 파리 패션 위크 도전을 위해 현지 오디션에 나선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